

기쁨의 뒤편길



-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現) 대법원 대법관



金昭英

I. 펜을 들며

어지러이 흩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책과 나만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 글이 나에게도 지난 수험생활을 정리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연히 행운의 여신이 내게 잠깐 미소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펜을 들 수가 있었다.

시험은 결과로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가 좋으면 그 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이 미화되거나 과장되는 것 같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는 법이며 그 방법 또한 여러 가지라 최선의 것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경험을 통한 비교선은 제시가능하지 않을까해서 공부방법을 중심으로 써 나가기로 한다. 아울러 문의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함을 이 글로 대신할까 한다.

II. 법관을 꿈꾸던 시절

3년 1남(우리집은 위로 딸 셋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어 말하는 적이 없다)중 장녀인 나는 검사로 계셨던 아버지로 인해 초등학교를 여섯군데나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주어 아무런 주저없이 법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 같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성적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최고로 여기는 가풍의 영향도 컸지만 어린 마음에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안겨주는 것은 공부외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도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면 지금쯤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까?

여자도 직업을 가져 생활력이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백마 탄 왕자님보다는 장래의 직업에 대한 꿈을 더 많이 가졌었다. 여자로서 당당할 수 있고, 성취감과 사회에의 공헌, 명예 등과 함께 평생을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지척지간에 있었던 것이다. 곁에서 바라보는 검사의 모습은 한 치의 어그러짐이 없고 청렴함과 사명감 그 자체였다. 남보다 많은 전근을 4남매를 모두 데리고 다니시던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으며 너무 엄해서 부하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일시 좌천까지 되실 정도로 완벽을 추구해 오셨다. 대학재학 중에 양과에 합격하신 시절의 말씀을 가끔 하시지만 그 어려운 공부도 오히려 재미있고 한번 해 볼만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내가 사법시험을 보게 된 이면에는 검사이셨던 아버지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수업시간에 한 여선생님께서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을 하시길래 나는 평소대로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는 식으로 넘기면서 오히려 현모양처쪽을 강조하였다. 막연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해 봤으나 막상 너는 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남에게서 듣자 더욱 투지가 생겨 기필코 법관이 되보겠다고 생각했던 같다.

사법시험은 마음의 결정이 반을 좌우하므로 시험을 보게 된 동기도 중요하다고 본다.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결정일 때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갈 수 있고 불평도 그 만큼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III. 대학생활

360여명중 여학생이 14명인 법대에 입학할 하자 처음에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곧 study group을 조직하여 공통교양과목인 영어를 해 나갔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 때 조직한 group은 몇 년위의 선배로부터 계속 아래로 이어져 오는데 우리 group의 성격과 83학번과 85학번의 study group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적 학구적이어서 교양영어를 학교진도까지 모두 마쳤고 특별히 노는 경우라면 생일외에는 손에 꼽을 정도가 있을 따름이었다.

2학기가 되자 학교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수업거부에 이는 시험 거부, 학생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대학내로 들어온 진

경을 보았을 때의 충격, 이런 것들이 상호복합되어 그 해 가을을 열병처럼 앓고 말았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는 결실도 있었다.

이렇게 대학 1년 때는 법사라고는 들여다 보지 않은 채 보냈지만,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사법시험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래서 우선은 3학년때 1차, 4학년 때 2차 합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만약의 경우 불합격된다면 대학원 1학년 때까지만 시도해 보기로 수험준비의 시한을 정하였다. 그 후에는 다른 길을 모색할 작정이었고 스스로에게 너무 여유를 주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사법시험도 시험이니만큼 같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하므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합격기를 훑어보는 일이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들은 감동적이었지만 오히려 나의 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역효과를 주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는 선배들에게 조금씩 물어서 기본서의 윤곽을 대강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학교강의와 친구들에게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다짐했던 것은 두뇌의 우수함을 믿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인 진도는 정해봐야 지켜질리 없을 것 같아 전체적인 계획만을 세우기로 하고 공부시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기로 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신학기부터는 전공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기초적인 법과목의 책들(헌법, 민법총칙, 형법총칙, 경제학)을 1회독 했다. 나는 1회독할 때마다 책의 뒷면에 1회독한 기간과 회독수를 써나갔는데 이때가 시간당 가장 빠른 속도로 읽었던 때였으니 이해가 제대로 될리는 만무했고, 다만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2학년이 되자 모두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뽐어내고 있는 듯이 보였으며 벌써 상당히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조급하게 느껴 지지도 않았고 최소한 법학적 사고를 읽힐 때까지는 강의시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공부는 주로 법대 옆의 국산도서관에서 저녁 8시까지 하는 정도였다.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1차준비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선은 기본3법을 기본서 중심으로 착실히 읽어 나갔으며 2학기에는 여학생회에서 이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법에 나타난 여성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가지고 형사법학회에 가입하여 형법에 관한 공부도 토론형식으로 해 보았다.

Ⅲ. 1차를 준비하며

속도는 보통 1시간에 10페이지내지 12페이지 정도로 읽었으나, 회독수만으로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저학년때 모르는 것은 물론이며 아는 것도 깊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차를 준비해야겠다는 느낌이 든 것은 2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때 부터였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 자리를 잡고 9시부터 1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대학생은 물론, 함께 이야기할 사람마저 없는 독서실에서 장장 5개월을 누우면 자고 앉으면 공부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 지금의 나로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물론 개학 후 텅빈 독서실에서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방학중에는 기본3법과 경제학,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1권씩 보았으며 영어는 점심식사후 1시간씩 아카데미 TOEFL을 풀었다. 너무 운동량이 줄었으므로 하루에 1,000번 정도의 줄넘기를 꾸준히 해 나갔으며, 친구도 되도록 적게 만나고 만나는 시간도 식사시간에 맞추려고 했다.

개학을 하자 일주일에 3일내지 4일 정도는 학교에 나가야 했으며 학교에서 1차의 대비방법에 대해 듣기도 했다. 3월에 국사와 문화사를 2회독하고 문제를 풀었으며 국제사법 역시 정리된 부분을 2회독 하고 문제를 풀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 1차가 한 달로 다가왔고 학교에 가는 시간도 일주일에 하루로 줄어 문제집 중심으로 실력을 체크해 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1차시험준비에 있어서 특히 유의했던 점은 철저한 안전주의를 택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다. 공부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외부적 사유가 없는 한 1차에 있어서 요령주의나 모험은 금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성적은 기출문제나 종합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집활용은 마지막 정리와 성적점검정도로 그치고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갔다. 그러나 문제집선택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틀린 문제는 꼭 표시해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치른 1차성적은 84점××로 그다지 나쁜편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 당시에는 영어 때문일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결론을 내린다면 너무 외부와 차단되어 했던 공부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V. 2차시험

1. 준비과정

1차를 5월 18일에 치르고 약간의 여유가 주어져 study group의 여자친구 둘과 설악산에도 가고 그 동안 못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어울리면서 틈틈이 민사소송법을 1회독하였다. 그해 2차시험은 망설임 끝에 하루만 들어가 시험장 분위기와 답안작성법 등을 알아 보기로 하고, 국민윤리를 1회독하였고, 헌법은 예상문제만을 보았는데 국민윤리가 뜻밖에도 62점이 나와 고무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내년의 걱정이 앞섰다.

형사모의재판을 9월초로 잡고 있었고 2차는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았으나 그것은 당위일 뿐 7월 말이 되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독서실에 앉으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근심만 늘어갔다. 하루는 나의 한심함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반나절을 울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그 다음날로 독서실을 옮겼다. 그 당시 2차공부계획으로는 겨울방학전까지 새로 들어간 법과목을 익히고 그 후에는 3개월, 2개월, 1개월, 보름으로 전과목의 회독속도를 점차 빠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한가지 고민스러웠던 것은 학교공부와 병행문제였는데 내가 학교수석이라는 사실을 3학년 때 알았기 때문에 양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였다.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사냥꾼의 입장이랄까. 결국은 두 토끼를 한 방향으로 몰아 차례로 잡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8월 중순부터는 모의재판준비로 인해 학교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만큼 공부시간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부지런히 읽어나갔으며 가족들의 휴가여행에서도 빠졌다. 그 결과 형소법, 민소법, 행정법(상), 상법을 1회독할 수 있었다. 모의재판연습을 마치고 10시 정도에 독서실에 도착하여 1시까지 계속 잠만 자다가 집에 간 일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2차시험준비에 대해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공부장소

주로 집근처의 독서실에서 공부했으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면 긴장감이 없어지게 되어 여기저기 옮겨다닌 편이었고 4학년의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강의를 들었고 5월이 되어 도서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고 자주 폐관을 하게 되자 공부의 리듬이 흔들리는 것 같아 다시 독서실로 들어갔다. 2차준비중에는 늘 여러명의 고시준비생이 있는 장소를 택하였는데 그것은 긴장감을 주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험이 한달로 다가오자 적당한 긴장이 이제는 과도한 긴장으로 되어 서너시간동안 한 페이지도 못 읽을 정도였다. 주저없이 가방을 챙겼다. 집으로 자는 발걸음은 패배자의 것이었지만 오히려 여유마저 지니게 되었고, 남은 16일 동안은 대문밖을 나간적이 없었다. 생각건대 공부장소로는 학교도서관이 장기간의 시험공부에는 가장 무난하나 언제 어느곳에서 공부하든지 중심으로 읽지 않는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2) 기본서 단권화에 대하여

나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단권화에 대해 말해보면 우선 단권화가 필요한 과목을 정하여(대체로 행정법, 상법, 형법정도가 될 것이다), 고시잡지 3개의 예상문제답안을 최근 2년간을 복사하여 기본서 목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기본서는 정독하고 답안은 속독을 하여 빠진 것이나 잘 정리된 것을 책에 끼워넣되 넘기기 쉽게 붙이면 된다. 또한 선배나 친구들에게 물어 기본서외의 다른 책에 잘된 부분과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 중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 주를 보고 찾아서 끼워넣는 것이 여러 책을 살살히 보는 것보다 능률적이다.

물론 단권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시간만 허비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꼭 같은 체제의 책에 액센트를 주어 지루함을 덜어준다는 이점과 답안의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권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헌법이나 형법은 1차준비중에 해 놓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부분이나 장황한 부분은 목차만 따로 조그맣게 적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본서에 붙여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단권화의 시기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기본서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여 3월까지의 끝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후에도 예상답안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볼 필요가 있다. 한여름 그 무더위에 언니를 위해 예상답안의 복사를 맡아 준 동생 은정에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3) 기본서

기본서로는 헌법은 강의를 들은 대로 기본적 권리·의무까지는 권영성 교수의 저를, 그 이후는 김철수 교수의 저를 보았으며 민법은 관운직 시리즈에 고시계 문제집을, 형법은 이재상 교수의 총론에 이형국 교수의 저를 합하였고, 각론은 이재상 교수의 각론(上)과 고시계 문제집을 합하였다. 상법은 정희철(上·下)에 이태로·이철송 회사법과 상법예해(하)를 합하였고 문제집은 고시계 것으로 보았다. 행정법은 법원까지는 김도창 교수의 저로, 행정구제전까지는 박윤혼 교수의 저로, 그 이후는 이상규 교수의 저로써 이 3권을 합하여 상을 보았고 (下)는 이명구 교수의 저로 보며 서원우 교수님의 논문과 책을 끼워 넣었다,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의 저를 기본서로 하여 고시계 문제집을 합하였고 형사소송법은 백형구 강의와 강구진 교수의 저를 합하였으며 마지막 국민윤리는 형설출판사의 교과서에 동 출판사의 문제집을 보았다.

기본 3법은 될 수 있는 대로 1차와 동일한 책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형법의 경우에는 신이론의 도입으로 체계가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강의도 이재상 교수의 저로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서를 바꾸기로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총론은 전체 2회독과 부분 3회독에 그치고 말았다.

(4) 시험정보와 답안작성 연습

방대한 분량의 8개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욱 읽어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이 섞여서 혼동이 되는 것 같아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는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해서 읽은 속도와 횟수 조정하기로 했다. 중요도는 각종 고시의 기출문제, 각 대학의 시험문제, 예상답안의 빈도수, 86년도와 87년도의 예상문제에 입법동향, 교수님들의 강의중 말씀, 친구들과 나의 의견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시험문제를 대해보니 결국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었다.

대학내에서 모의시험이라는 것도 없고 별도로 특강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비록 채점은 각자가 하더라도 답안작성연습을 위해 1학년 때부터 결성된 study group에서 모의시험을 치기로 하여 4월부터 1주일에 한 과목씩 모두 8주동안 법대 강의실에서 모여 전과목을 마쳤다. 물론 1주일에 한 과목을 다 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과목도

있었지만, 예상외의 문제를 푼다는 태도로 끝까지 버티어 냈다. 이때 같이 연습한 친구들이 모두 54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을 보면, 없는 시간이나마 쪼개어 답안작성연습이 주요했던 것 같다.

(5) 마지막 정리

4월과 5월에는 예상외로 허비한 시간이 많아 기말시험까지 겨우 1회독을 할 수 있었고 그러자 2차까지는 25일 정도가 남아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한자도 빠지 않고 읽은 성미인 나는 도저히 8과목을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 고시 잡지 3개의 예상문제를 다 모아 그 문제는 정독을 하고 나머지는 줄친 부분만 읽기로 했는데 예상문제가 너무 많아 각 과목 3일씩으로도 힘에 부쳤다. 순서는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 이해과목을 먼저보고 소송법을 나중에 보도록 하였으며 국민윤리는 매일 1시간씩 보고 시험전일에는 헌법과 국민윤리를 배당했다.

2. 2차시험

어김없이 시험일은 다가왔고 결국 정리도 다 안된 상태에서 몇 가지 주의점만 상기하였는데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여러 번 읽을 것, 자세히 쓰도록 할 것, 글씨를 크게 쓰고 한자를 되도록 많이 쓸 것, 판례를 잊지 않고 쓸 것, 분량을 많이 쓸 것 등이었다. 시험 나흘 동안 5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면서 면과락만 간절히 바래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 약간 어리둥절할 뿐이었다(점수는 국민윤리-59, 헌법-54.66, 행정법-59.66, 상법-60.66, 민법-53.33, 민소법-71.66, 형법-68.33, 형소법-59, 평점-60.79). 특히 민사소송법의 준재심은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것이라 조문을 중심으로 쓰고 화해에 대한 비판은 강조하면서 입법론으로 끝을 맺었는데 점수를 보고 다시 놀랐다. 2차는 그 전날에 다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어느 한 문제를 자세히 쓰는 것보다는 세 문제 모두 논점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쓰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2차발표날 떨리는 마음으로 잡지사도 다이알을 돌릴 때는 그래도 정성을 다했으니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했었다.

막상 “그 번호 없는데요”라는 말을 듣고 재삼 확인까지 했을 때의 나의 기분이란……, 2년 세월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옆에 있던 훈이 그럴 리가 없다며 다른 잡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주어 겨우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하루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왕래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VI. 글을 마치며

사법시험은 응시자도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적인 자신과의 싸움과정인 것 같다. 젊은날의 낭만과 즐거움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날의 고생과 공부는 평생의 밑거름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결코 도피처가 될 수 없다, 그러기에 나의 합격이 이 길을 선택한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눈은 멀고 높은 곳을 보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려라’라고 했듯이 이상이 클수록 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용의주도하게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놀았던 기억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부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알 것이다. 과도한 긴장은 여유보다 해로우며 가장 필요한 것은 합격에 대한 믿음과 집중적인 공부라고 생각한다. 기타 외부적 어려움은 정도차가 있지만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지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없는 가운데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부모님, 가장 좋은 친구로 기쁨과 괴로움을 같이 해준 훈, 자료정리를 도와준 동생 은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린다. 그 외에도 조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과 친구들, 특히 선희, 시철, 성룡, 옥이와 특별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 도와준 후배 회정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친구 영식이의 차석합격을 기원한다.

사범시험의 합격은 내게 주어진 일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이제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설계에 시선을 돌려보며 좀더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